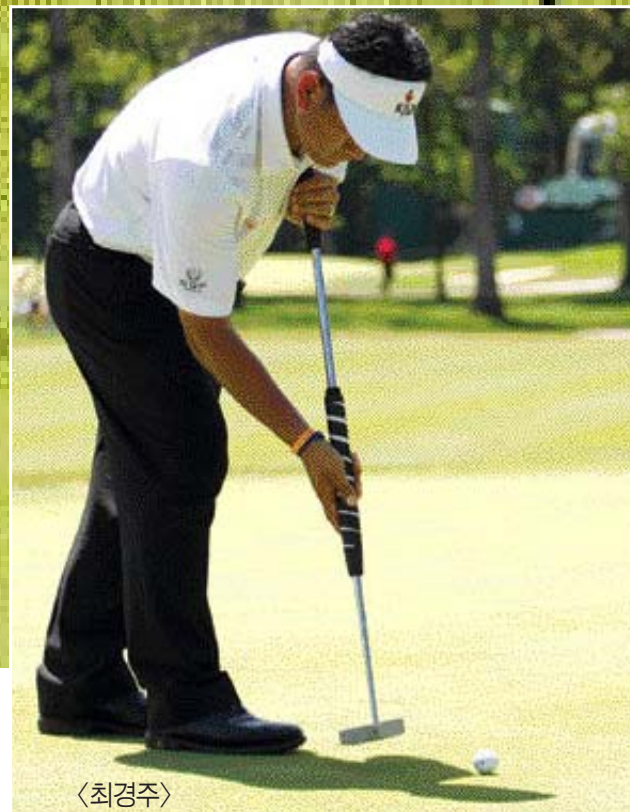




150주년 맞은 브리티시 오픈 오늘개막

양용은이 14일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 1번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우즈>

한국 FIFA 랭킹 44위

월드컵 전보다 3단계 상승... 스페인 1위·日 32위

한국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14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44위로 세계 단 올라섰다. 5월 랭킹에서 47위였던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강에 오르며 랭킹 포인트 28점을 보태 660점으로 44위가 됐다. 남아공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1천883점으로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준우승팀 네덜란드는 1천659점으로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였던 브라질은 1천536점으로 3위로 밀렸다. 호주가 20위로 변화가 없었으나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지켰다. 일본이 무려 13계단 오른 32위로 아시아권 2위, 한국은 그다음이다. 북한은 2계단 오른 103위. 상위권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월드컵 4강에 오른 우루과이가 10계단 오른 6위가 됐고 16강에서 탈락한 포르투갈은 3위에서 8위로 밀렸다. 조별리그 통과도 실패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6계단 하락한 11위와 12계단이 밀린 21위로 처졌다. 월드컵 참가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팀은 남아공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기록한 뉴질랜드로 78위에서 54위까지 경총 뛰었다. 8강에 오른 파라과이도 15계단 오른 16위로 자리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 주목할 국가

한국 7위

미국 스포츠전문 웹진 블리처리포트가 한국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주목할 나라 16개국 중 일곱 번째로 꼽았다. 블리처리포트는 14일(한국시간)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16개국"을 선정해 한국을 일곱 번째에 올려놓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이뤘고,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한국의 자신감에 차 2014년을 기다릴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블리처리포트는 남아공 월드컵 개막 이전인 지난 4월, '역대 월드컵의 12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는 심판 덕이라고 평가절하한 칼럼이 실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4년 뒤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많은 스타 선수들이 30대가 되지만 미드필더 기성용(셀틱)과 이청용(볼턴) 등의 플레이는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졌음을 입증한다. AS 모나코의 빼어난 공격수 박주영은 2014년에는 기량이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레게 하는 것은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주역이다"며 한국이 다음 월드컵에서도 선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는 지난해 FIFA U-20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프로 무대에서 뛰는 19세 스트라이커 석현준(아약스)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블리처리포트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로 개최국 브라질을 꼽았고 독일, 가나, 스페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남아공 월드컵의 경험을 잘 살린다면 2014년 월드컵 예선도 통과할 것이다. 서른 살이 되는 인민투니 정대세(보훤)는 파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면서 마지막인 16번째에 올려놓았다. /연합뉴스

여자 육상 중거리 간판 허연정

800m 2분04초78... 23년만에 한국新

日 챌린지대회 5차레이스 3위

여자 육상 중거리의 간판 허연정(30·교양시청)이 800m 한국기록을 23년 만에 갈아치웠다. 허연정은 14일 일본 홋카이도 기타미시에서 열린 호쿠렌 디스턴스 챌린지대회 5차 레이스 여자 800m 결승에서 2분04초78을 뛰며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허연정은 1987년 최세범(당시 서울체중)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2분05초11)을 무려 23년 만에 0.33초 앞당겼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한국신기록을 세운 허연정은 800m과 1,500m가 주종목으로 그동안 2분9~10초대를 뛰다가 대표팀에서 맹

훈련, 지난 5월 전국종별대회에서 기록을 2분06초88까지 줄였고 같은 달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는 2분05초83으로 단축, 한국신기록 가능성을 높였다. 400m 트랙을 두 바퀴 도는 800m는 '격전지'로 불리는 분야다.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고 특히 고도의 레이스 전략과 몸싸움 기술까지 겸비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기록보다도 치열한 눈치싸움을 펼쳐 순위 싸움으로 흐르는 특성상 기록이 정체됐다. 세계기록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자밀라 크라토츠빌로바가 1983년 세운 1분53초28, 아시아 최고기록도 1993년 중국의 류팅이 세운 1분55초54다. /연합뉴스

우승비결 '퍼터'는 안다

최경주 - 우즈 '오픈' 앞두고 퍼터 교체 초강수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들은 14개의 클럽을 소지할 수 있다. 드라이버를 비롯해 아이언과 웨지, 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의 클럽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채는 무엇일까?

바로 퍼터다. 보통 18홀을 돌면 드라이버는 14번 꺼내지만 퍼터는 컨시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23~25번은 잡아야 한다.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평균 타수 1위(69.54타)에 오른 에니 엘스(남아공)의 라운드당 평균 퍼트 수는 28.89개(공통 58위)다.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퍼팅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확한 자세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한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화려한 티샷은 쇼일 때가 많지만, 퍼팅은 혼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프로선수가 한번 자신의 손에 익은 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절대 교체하지 않는 이유다. 국내 남자 골프에서 퍼트의 귀재로 불리는 최상호는 1978년 프로 입문 후 32년 동안 퍼터를 5번밖에 교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11년간 메이저 13승을 이끈 퍼터를 바꿨다. 드라이버부터 볼까지 모두 메인 스폰서인 나이키 제품을 사용해 온 우즈는 유독 퍼터만은 '스코티 캐머런'의 '뉴포트 2'를 써왔다.

그렇지만 대회장인 올드코스의 그린이 유달리 느리다고 판단해 퍼터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우즈는 14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느린 그린에선 항상 고전해 왔다"며 "새 퍼터가 볼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굴러줄 것"이라고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우즈는 새로운 퍼터로 나이키의 메소드 퍼터를 택했다. 우즈는 2000년과 2005년 올드코스에서 우승할 때 '뉴포트2'를 사용했으나 올 시즌 퍼팅 부진이 심해 새 퍼터를 선택했다. 우즈는 2주 전 열린 AT&T내셔널에서 3m 이내의 퍼트를 15개나 놓쳤다.

'탱크' 최경주(40)도 희한한 퍼터를 들고 나왔다. 최경주는 브리티시오픈 개막 하루 전인 14일 그림이 두 개 장착된 퍼터를 들고 연습 그린에 등장했다. 그림 하나는 샤프트 끝에, 다른 하나는 샤프트 중간에 있는 이 퍼터는 어드레스 자세도 특이하다. 왼손은 샤프트 끝에 있는 그림을 잡고 오른손은 샤프트 중간에 있는 그림을 잡게 돼 허리를 많이 숙여야 한다. 마치 크리켓 선수 같다. 최경주는 지난주 존디라 클래식에서 이 퍼터를 처음 사용했으나 예선 탈락했다. 최경주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이 퍼터를 사용할 때 100%만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퍼터의 이론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코스공략법 알고 있다' 우승 자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5일(이하 한국시간) 시작되는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우즈는 14일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승이 목표다. 골프의 성지인 이곳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어떤 것 과 비교해도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과 2005년

같은 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정상에 올랐던 우즈는 "이 곳에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 코스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공을 멀리 치는 선수들은 여럿 있지만 이 코스에서는 공을 원하는 곳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린이나 다소 느린 이번 대회를 앞두고 11년 만에 퍼터를 바꾼 우즈는 "2번 아이언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2번 아이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았으나 바람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를 앞둔 '맞춤형 클럽 선택'인 셈이다. /연합뉴스